



## 포르투갈, 20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움

최 원 선임연구원

- **올리 렌 EU 집행위원회**는 10월 18일 포르투갈 정부가 구제금융 당시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20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.
  - 포르투갈 정부는 2011년 5월 EU와 IMF를 통하여 780억 유로를 지원 받으면서 향후 3년간 긴축 정책을 토대로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축소를 약속하였음.
  - 올리 렌은 포르투갈이 2011년 말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을 5.9%(2010년 말 9.8%)로 낮추어야 하나 현재 8.3%를 나타내고 있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며, 포르투갈 정부의 예산 계획과 집행 실패를 지적함.
  
- **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구제금융 당시 합의한 것보다 더 강력한 긴축정책이 포함된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, 2012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.**
  - 포르투갈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,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일부의 일시적 지급 동결, 부가가치세 인상, 보건·교육 부문 예산 대폭 삭감, 근무시간 연장 등 부문별 강력한 긴축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.
  - 올리 렌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긴축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, 다른 전문가들은 긴축 조치로 포르투갈의 빈곤, 실업, 불평등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함.
  
- **그리스, 스페인과 더불어 포르투갈의 20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실패가 예상됨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.**
  - 그리스 정부는 2011년 6월 2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 당시 201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7.6%로 제시하였으나, 경기침체 확대 등을 이유로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8.5%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수정 전망한 바 있음.

- 스페인의 경우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6.0%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.

〈표 1〉 유럽 주요국 재정적자 수준 및 감축 목표

(단위: %)

국가	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	2011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
아일랜드	32.4	9.1 <sup>1)</sup>
그리스	10.5	8.5 <sup>2)</sup>
스페인	9.2	6.0
이탈리아	4.6	3.8
포르투갈	9.8 <sup>3)</sup>	5.9

주: 1) 2010년이 수정되기 전인 11.7%에서 제시된 목표치임.

2) 7.6%에서 8.5%로 수정됨.

3) 9.2%에서 9.8%로 수정됨.

자료: EU.

(FT, WSJ 등, 10/19)